

손학규 버티기에...호남기반 3당 통합 난기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는 손학규 대표의 '뭉치'가 3당 통합의 최대 복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통합을 추진 중인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3개 정당은 12일 신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안신당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기존 지도부의 2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손 대표가 이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통합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흘러나온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

바른미래·대안신당·평화당 신당 지도부 구성 협상 난항

孫 "2선 후퇴 요구 수용 못해" 바른미래 호남의원 탈당 움직임

박주선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12일 오전 2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1차 회의에서 '17일까지 조건없는 통합'에 합의하며 가속 페달을 밟던 이들 3당간 협의가 주춤하는 것은 통합 정당의 지도부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3당이 통합 정당의 지도부를 각 당에서 한 명씩 참여하는 '공동대표 체제'로 구성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유성엽 위원장은 '손학규·정동영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바른미래당의 '합수통합'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박주선 위원장은 밤 사이 손학규 대표를 면담했으나, 손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 통합과 손학규 거취가 무슨 상관인가, 통합이 '당대표 물러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2선 후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은 지난 11일 "기득권 포기를 포함한 조건 없는 통합을 오는 17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손 대표의 퇴진 불가 방침으로 기한 내 통합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손 대표의 노욕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비판과 함께 결국 당 소속 의원들이 '2차 탈당'에 나서는 '플랜 B'가 거론되고 있다. 손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전원 탈당해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의 17석 중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안철수계 7석을 제외하면 10석(지역구 3석, 비례대표 7석)이 남는다. 여기에 대안신당(7석) 및

평화당(4석) 의석이 온전히 통합할 경우 21석으로 가까스로 원내교섭단체 지위(20석 이상)를 유지하게 된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셀프 제명' 절차를 밟는 방안도 거론된다. 징계 사유가 없지만 의원총회에서의 제명을 통해 탈당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는 윤리위원회 징계, 의원총회 제명, 사무총장 직인 절차 등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또 이상돈, 박선숙 비례대표 의원 등이 제명되더라도 통합 신당에 합류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일단 3당 대표가 일시적으로 공동대표를 맡고 2차 통합이 이뤄지면 퇴진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통합위원장은 "문제는 3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주도할지, 통합 당시에 대표를 사임하고 새 얼굴을 대표로 모실지, 아니면 외부인사를 영입해 단일대표제도를 할지 논의 중"이라며 "특이사항은 2단계 통합(3당 통합 후 청년 등 정치 제세력통합)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시간적 한계가 일주일이다. 3당이 통합할 경우 대표직을 유지해도 일주일"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청년·소상공인 세력과 2차 통합을 마치면 어차피 새 지도부가 들어설 텐데, 그때까지 기존 리더십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예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30% 무당층 우리 바라보고 있다"...창당 23일로 앞당겨

국민당(가칭) 안철수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창준위 첫 회의에서 "30% 이상의 무당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 무당층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작년 12월 초 20%대에서 최근 40%대까지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전날 창준위 부위원장

에 권은희 의원, 창당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장에 이태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1차 인선을 발표한 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안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판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공정한 사회, 안정한 사회, 좋은 일자리가 이 시대의 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 "세금을 끊으면 일자리로 줄 수밖에 없는 허망한 구조"라고 비판한 뒤 "좋은 일자리는 시장이, 민간이 만든다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을 맡은 김수민 의원은 이날 회의 기자들과 만나 "3월 1일로 예정했던 중앙당 창당대회를 1주일 앞당긴 오는 23일 열기로 했다"며 "총선 일정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오는 16일 광주·경기·서울·대전에서 순차적으로 사·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이어 18일 대구, 22일 인천·충북 사·도당 창당대회가 예정돼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권리당원명부 과다 조회 예비후보 징계키로

도덕성 최하점...경선 15% 감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다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해 100명 이상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모두 감점하기로 했다. 페널티는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15점 만점) 항목에 최하점인 3점을 주고, 기여도(10점 만점) 항목도 최하점인 2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선에서는 15%를 감산한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권리당원

25명의 추천서를 내도록 했는데, 추천인이 실제 권리당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천 신청 프로그램을 통한 권리당원 명부 조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은 이를 이용해 권리당원 정보를 '무더기 확인'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비상 징계를 내린 뒤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바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징계 기록을 남겨 '징계 경력자' 경선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을 100명 이상 확인해 심사·경선에서 모두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우기종(목포시), 양기대(경기 광명), 이경용(충북 제천단양), 이성만(인천 부평) 예비후보 등 4명이다. 광주 광산에 감점된 예비후보도 100명 이상의 권리당

원을 확인해 징계 대상이었으나 전날 사퇴했다.

또 100명 미만의 권리당원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경선 감점은 하지 않고 심사에서만 도덕성 항목 최하점이 적용된다. 심사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신정훈(나주·화순), 배중호(목포시) 예비후보 등 전국적으로 10명이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 등은 "후보 등록에 따른 권리당원 추천서를 받기 위해 적법한 열람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만 가운데 목포와 나주·화순 지역구는 치열한 경선전이 펼쳐지고 있어 이번 징계 결과와 경선 컷오프는 물론 최종 경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행복한 인생 2막 누릴 소중한 일을 찾자



김은영의 '그림 생각' (300) 100세 시대

지난 해 말 주민등록부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바야흐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 65세를 노인이라 할 수 있을까?

노인 나이를 65세 기준으로 정한 것은 1889년 '철의 재상'이라 불리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연금보험제도를 마련하면서 국가 재정상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를 정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기

준을 고민 없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인생도 일반적으로 배움의 시기와 일하는 시기로 나뉘었던 것 같다. 100세 시대가 된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일해야 할 것이고 90세에도 자기 계발을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이미 도래했는지도 말이다.

우리가 흔히 '모리스 할머니'라고 부르는 예나 메리 로버트슨 모리스(1860~1961)는 75세에 그림을 시작해 101세까지 미국의 국민화가로 활동했다. 모리스 할머니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70이 넘도록 농장일과 자수 놓는 일로 일생을 살았다. 관절염이 심해져 바느질 대신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서둘러 자신 이 살던 농장 모습,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풍경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작품 '윌링 모담'(1950년 작)은 모리스 할머니가 살던 마을에서 긴 겨울동안



모리스 작 '윌링모담'

봄이 오기까지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천에 자수를 놓고, 그 천 속에 숨을 넣어 누비는 윌링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쌓았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머리가 희끗하고 나이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가 왼편에 앉아 색감을 배치하고 바느질하는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화면 앞쪽에는 한 상 가득히 식사가 준비되고 있어 마치 즐거운 축제 같다.

모리스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아 들어 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소중한 일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